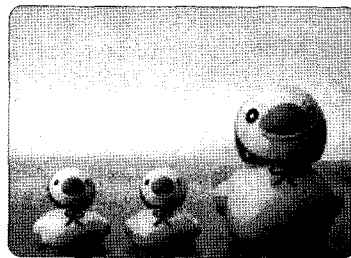


environment NEWS

포인트에 할인까지!
'그린카드' 출시!

일상생활에서 할인혜택에 포인트 적립까지 그야말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버린 카드가 앞으로는 '녹색생활 실천'까지 도와준다고 한다. 환경부에서 이번 여름에 출시하는 '그린카드'가 바로 그것이다. 그린카드는 국민의 녹색생활과 신용카드의 포인트제도를 연계한 제도로 탄소포인트 제공은 물론 환경마크나 탄소라벨 부착 제품을 구매할 경우 포인트 지급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국립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4일에는 28개 기업과 환경부, 카드사가 모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5월 중순까지 참여기업과 포인트 제공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또한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와 협약참여 기업이 녹색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녹색소비 포인트는 신용카드의 사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제공되며, 대중교통 할인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위한 최저 사용금액도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린카드는 금년 하반기 초부터 비씨카드 및 KB국민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 어린이용품,
발 붙일 곳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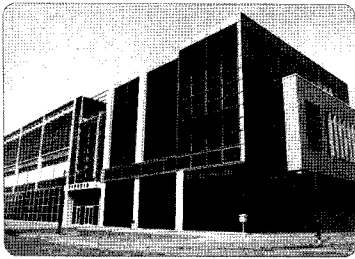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어린이 용품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최근 어린이 완구에서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가 검출되는 등 어린이 건강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평가를 통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 용품 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이러한 물질의 사용 또는 판매를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용품이 위해성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관계부처 통보 등에 그쳤던 것이 이번 법률개정으로 판매 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뀌어 제도의 집행력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해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리산 반달곰 가족
경사났네~

지난 3월 새끼곰의 탄생을 알려온 지리산 반달곰들에게 또 한번 경사가 났다. 작은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에서는 작년 부터 출산 가능한 암컷 곰을 집중 관찰하여 왔는데, 지난 4월말 겨울내 동면하고 있던 어미곰이 굴에서 나와 새끼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난 2007년 러시아에서 온 어미곰(RF-25번)이 같은 고향에서 온 수컷과 교미 후 2월 초에 새끼를 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는 수컷이며 몸길이 40cm에 몸무게는 약 4kg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반달 가슴곰은 2004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7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으며, 현재 5마리의 새끼곰이 야생에서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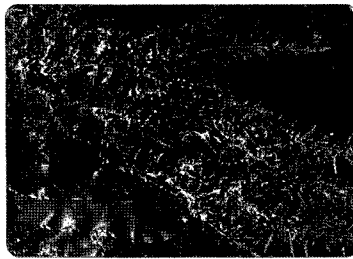


WOW! 스마트한 '탄소제로 건물' 탄생



가끔 TV에 '난방비'나 '전기세'를 거의 내지 않는 집이 소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태양열과 지열 등의 자연에너지와 슈퍼 단열 등의 기술을 사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탄소제로건물'을 준공하였다. 탄소제로 건물은 무려 66가지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위치를 남향에 배치하고, 단열 강화를 위해 일반 건물의 두 배에 이르는 두꺼운 단열재와 3중으로 된 유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지열로 전기와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그린에너지 관리 시스템(Green Energy Management System, GEMS)을 구축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녹색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탄소제로건물에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연간 중형차 한 대가 서울과 부산을 500회 왕복할 때 나오는 양이라고 한다. 더욱 뜻깊은 사실은 탄소제로 건물에 적용된 총 66가지 기술 중 국내기술이 62종, 외국기술 4종으로서 이 멋진 건물이 대부분 국내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건물을 짓는데 든 비용은 일반적인 연구나 전시 관람을 위한 건물의 공사비보다 약 1.4 배 더 소요되었다.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약 22년~23년으로, 건축물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투자비 회수기간 이후의 수익은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에서 찾아낸 노화방지 특허물질



요즘 '항산화 물질'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해 보았을 것이다. 젊음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 물질과 관련해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이 특허 출원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0년도 「자생 유용 하등 식물 자원화 연구」를 통하여 자생 해조류 '잔가시모자반' 으로부터 신규 천연 항산화 화합물을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항산화화합물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 구조와 활성이 밝혀진 바 없는 화합물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천 재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주름개선, 미백 등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과 기능성 건강보조식품개발 등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잔가시모자반은 산업화와 자원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자생 해조류로 울릉도, 부산, 남해, 원도, 제주도, 황해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추후 지속적으로 국내 자생 생물종에 대한 천연물 관련 연구를 통해 국가 생물자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는 원천재료 확보 등의 생물자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우리집, 그린코디가 도와드려요!

환경부에서는 2009년부터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환경 내 환경유해요인을 측정·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사항을 컨설팅 해주고 있다.

올해는 주부로 구성된 40명의 친환경 건강도우미들이 2,000가구를 방문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이 중 1,200가구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나머지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시중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바우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 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자에 대해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컨설팅 사업'은 우리 아이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분석하는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은 홈페이지(www.greencody.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이스 샷~! 소음피해는 어떡해...

교외로 나가지 않아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도심지 내 골프연습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근처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8,92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해 향후 도심지 내 실외 골프연습장 사업주의 자발적인 소음 방지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인은 인근 실외 골프연습장이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23시까지 운영되어 이때 발생하는 타격 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6,000천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아파트 주변지역은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 지역으로 특별한 소음발생원이 없고 골프장과 아파트 사이 거리가 5m정도로 인접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야간한도 기준(45dB)을 초과하여 이미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이에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 신청인 24명에게 총 8,925천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골프연습장은 1983년부터 운영되었고, 신청인의 아파트는 2004년도에 준공·입주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 인지하고 입주한 점 등 여러 사려를 감안해 피해배상 금액을 50%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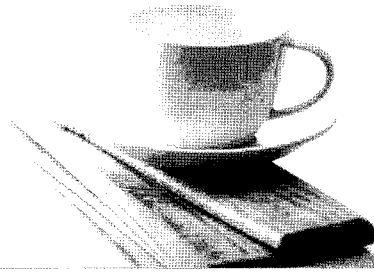
안쓰는 휴대폰 기부하면 기념품이 와르르!

요즘 스마트폰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을 그냥 서랍 속에 방치 하셨다면, 이참에 '기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년 2,000만대의 휴대폰이 버려진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휴대폰을 수거해 금속자원을 재활용하는 「2011년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을 7월 31일까지 벌이고 있다. 2005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특히 올해 이동통신사가 주축이 되어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였다. 폐휴대폰에는 금, 은 등 귀금속과 팔라듐 등 희유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1대당 평균적으로 약 3,000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매년 2천만대씩 버려지는 폐휴대폰을 잘 활용한다면 연간 약 6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는 셈이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폐휴대폰을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나 지자체 주민지원센터, 이마트, 사회단체 등에 가져가면 기부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초·중등학교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하시는 분들께는 기념품(환경노트 등), 보상금(이통사) 및 포인트(이마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추가로 경품응모 기회도 부여된다. 수거과정 중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 판매 대리점에는 개인정보 초기화 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수거된 휴대폰 중 사용 가능한 폐휴대폰은 재사용하며, 사용이 어려운 폐휴대폰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금속 등을 회수한다. 매각 수익금 중 일부를 행사 지원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Good News! 산업계 화학물질 배출량 줄어

환경부가 2009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산업계의 화학물질 사용량은 늘었으나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배출량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취급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배출량은 2000년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환경부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풀이 된다. 특히, 자발적협약이 만료된 140여개 기업들 중 87%가 배출저감 목표(배출량 50% 저감)를 달성한 것은 물론 당초 목표보다 높은 저감률을 보였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폐수 또는 폐기물로 이동된 화학물질의 양은 다소 증가했다. 다행스럽게도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10종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에서 전체 배출량의 70.3%를 차지했으며, 화학물질은 대부분 대기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울산, 경기 순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 홈페이지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기술의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정책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대한상의 신입직원, 사랑나눔 봉사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최근 입사한 신입직원 등 10여명은 지난 4월 28일 중구 예당동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남산원'을 방문해 대형 TV 등 후원물품을 기증하고 주변 환경정리를 도왔다. 이날 신입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내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회 생활을 갓 시작하는 젊은 직원들이 나눔의 가치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신입직원은 "그간 취업준비와 직장생활 적응 등으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외된 분들께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아 마음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신입직원부터 체험형 봉사활동에 참가시킴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회원기업과 각종 민원인을 대하게 되는 기관특성상 서비스 정신 제고에도 많은 봉사활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사무국 내에 사랑나눔봉사단을 조직해 매년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을 찾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중 녹색경제협력포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중국 장쑤성 우시 후빈호텔에서 '제3회 한중 녹색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용천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지원실장 등 한국측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지페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중국인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녹색기술과 친환경 제품을 남보다 앞서 개발하는 기업들이 향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과 중국 간 협력강화는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실제 한·중 협력사업 추진 중 겪었던 애로사항과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까지 세 번의 포럼을 거치면서 녹색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가 늘고 서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향후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이 단기적 관점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구체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